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광서사범대학교	학비	학교 등록금 납부
파견지역	광서 계림	기숙사비	2500元
파견기간	3월7일~7월10일	기타비용	생활비, 여행경비

▣ 파견자 정보

성명	△△△	학과	△
성별	남	학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5. . .

파견자 : △△ (서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광서사범대학교는 우선 한국학교와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좋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다. 내가 갔을 때 모든게 처음하는 교류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다.

교육과정은 크게 반이 초급, 중급, 고급반 으로 형성이 되어있으며 각 한국대학교와 동일하게 내가 듣고 싶은 과목6개를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초급반수업2개 중급반 수업3개 고급반1개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시간표를 짜서 들게 된다. 수업 방식은 한국에서의 수업과 비슷하게 나가는 방식도 있는 반면에 중국어로 발표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극 등 친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게 잘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반이 적다보니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편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가 있다. 게임이 한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다보니 한국인을 굉장히 선호하고 신기해하고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한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모든 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다.

수업과제와 숙제 등은 처음에 굉장히 벅차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완벽히보다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교수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평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수업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2번째 꾸준히 교류한다면 훨씬 좋아지고 좋은 교환학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계림의 환경은 계림산수갑천하라는 말이 유명하듯이 자연과 어우러져있어 물과 공기가 아주 좋다고 유명하다. 따로 말을 안해도 다른지역에 비해 좋으며 습하다. 여름에는 엄청 덥고 4월까지의 우기 때문에 추워서 다들 두꺼운 옷 입고 다닌다.5월부터는 갑자기 더워지면서 6월부터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다. 1학기에는 옷을 두꺼운것과 여름옷을 반반 씩 챙길정도로 기후가 급변한다. 비올 때는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쏟아지며, 오전에는 비왔다가 오후에는 언제왔는지도 모르게 맑을 수도 있어 염두해야한다. 학교의 위치는 시내에서 버스타고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계림의 가운데 있어 어디로 가기에 아주 용이하다. 교통편은 아주 만족스럽다. 중국의 교통은 워낙 번잡하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면 안대고 그나마 중국에서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학교 주변에는 학교내에도 기본시설은 다 있고 문밖에는 각종음식점과 시장 병원 등 다 있다. 학교에서 시내에 가기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 백화점이 있어 패스트푸드 등 먹을 수 있다 걸어서 30분 걸리지만 개인적으로 오토바이가 있으면 10분도 안 걸린다. 학생들이 쓰고 난 오토바이를 팔기 때문에 1년생각하는 학생은 있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된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사 진 첨부

사 진 첨부

사 진 첨부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사 진 첨부

식당은 학생 식당은 크지만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한 번씩 먹고 학교 앞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 진 첨부

세탁실 같은 경우는 4층과9층에 있는데...
4층은 거의 고장난 상태이고, 9층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용할 때는 3元씩이다.
대부분 외국인 같은 경우 방에다 세탁기를 두어
빨래를 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짧게 있다면
그냥 3元주고 하는게 훨씬 낫다.

사 진 첨부

강의실은 좋은 강의실은 본과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하는게 좋다.
강의실에는 에어컨이 없으며 책상과의자가
옛날 할아버지 세대들이 썼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컴퓨터와 티비가 있어 가끔 영상도 보고
여름 빼고는 괜찮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 개선점 혹은 건의사항

교환학생을 처음 파견하는 학생이었는데 처음 교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다른 학교에 비해 순조롭지 못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중점으로 학교를 선택했는지를 생각한다면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회화와 한국인이 없는 곳을 찾는다면 이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많다는 서안을 갔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길에서 한국어가 들렸다는 점이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계림에는 한국인이 없어 길거리에서 한국어를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한국인끼리는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적다 보니 한국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많다 보니 친구를 만들기에 훨씬 유리하고 남쪽지역이라 동남아시아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시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곳을 추천한다.

수업 외 활동으로는 학교 내에서의 외국인 행사에 참여를 하였으며 관광지로 유명한 계림시의 관광지 대략 10군데 이상을 갔다 오고 양식의 관광지를 모두 보고 왔다. 서안을 5일 동안 여행하면서 다른 지역의 문화에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과와 교류를 통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활용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교류를 하였다. 학교의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길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으며, 또한 학교의 축제 이외에도 외국인 축제가 많아서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훨씬 수월하고 기숙사도 개방적이어서 불편한 점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 또한 한국인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은 이미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친절히 도와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